

2014. 1차 순경 (3.15)

“ 실력보다 10점은 더 맞을 수 있게 해주는 문제해설! ”

출제경향과 난이도

- 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8:2로 근현대사가 4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그중 현대사 문제는 한문제만 출제되었는데, 다소 까다로웠다.
- ② 난이도는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상하정도였다. : 즉 꽤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나올만한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자세한 내용까지를 질문하여 중심내용을 심화학습하지 않고, 대충 본 학생들은 다소 당황했을 듯 하다.
- ③ 앞으로의 공부방향 : 이번 시험의 경향은 나올만한 부분에서 대부분 나왔지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보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우선 중요한 부분을 자세한 내용까지 공부하는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2014. 1차 순경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②	④	④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②	①	①	②	②	①	②

1.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 시대 유적이다.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동검
 - ② 양양 오산리 유적 - 뼈 낚시바늘
 - ③ 여주 혼암리 유적 - 오수전
 - ④ 부산 동삼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

해설 여주 혼암리, 부여 송국리는 탄화미가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반량전, 오수전, 명도전은 철기시대의 유물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까지는 북방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철기시대부터는 중국문화권 영향을 주로 받게 된다. 중국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유물이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 발견과 다호리봇을 통해 추측되는 한자의 사용이다.

① 부여송국리는 청동기시대 대표적 유적지이기에 비파형동검이 맞다. ② 양양오산리는 신석기시대 유적지이다. ④ 부산동삼동은 신석기시대 대표적 유적지로 조개무지(=패총)유물로 유명하다.

답: ③

2.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
 - ②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 ③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 ④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 1차 점전(패수)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해설 ③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우거왕은 위만의 손자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다.

●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랑캐의 옷을 입었다.’를 보고 ①번을 답으로 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록은 위만이 조선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측의 기록들은 당시 고조선을 오랑캐로 여겼기에, 중국측 사료들은 위만이 오랑캐의 옷을 입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①번도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출제자가 ①번을 함정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냈다면, 또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기에 ③번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수정답처리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기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위와같은 이유로 인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③

3. 다음의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명을 해아린다. 수해나 한재를 입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하였다.

—『삼국지』「위서동이전」—

- ①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②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③ 가(加)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3세기 말 읍루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해설 사료는 부여에 대한 기록이다.

④ 부여는 읍루족이 아닌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 크게 쇠퇴하고, 494년 문자명왕때 고구려에 편입된다.

답: ④

4. 다음 역사적 사건이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신라 진흥왕은 북한산을 순행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신라와 연합하였다.
㉢ 고구려 장수왕은 죽령 일대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판도를 넓혔다.
㉣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㉔장수왕은 5세기 ㉑㉒㉓㉔은 6세기

6세기 상황 ㉔신라는 법흥왕때 금관가야를 병합한다(532) ㉒ 백제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538) 신라와 연합하여, 결국 한강을 다시 찾게 된다. 그런데 신라는 백제를 배반하고 한강을 독차지하였고 이에 가야백제 연합군과 신라의 관산성전투(554)가 벌어지는데 이때 백제는 패배, 성왕은 전사하고 나제동맹은 깨지게 된다. ㉑ 신라 진흥왕은 새로 정복한 한강유역을 순행하고 거기에 북한산비를 세운다.(555) 관산성전투에서 패배한 ㉔대가야는 결국 신라에 병합된다.(562)

답: ㉔

5. 다음 중 신라 왕호와 그 역사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㉑ 거서간·차차웅 -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 분리

㉒ 이사금 - 연장자의 의미로, 박·석·김 3부족이 연맹하여 교대로 왕을 선출

㉓ 마립간 - 김씨가 왕위 계승권을 독점하면서 왕권 강화

㉔ 왕 - 지증왕이 처음 사용하였고,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기 시작

① ㉒, ㉓

② ㉑, ㉒, ㉓

③ ㉑, ㉓, ㉔

④ ㉑, ㉒, ㉓, ㉔

해설

모두 맞다 !

[신라의 왕호 변천] 신라에서는 왕의 칭호가 여러차례 바뀌었는데,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그 칭호가 나누어지게 되었다(거서간 → 차차웅).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을 하면서, 유력집단의 우두머리는 이사금으로 추대되었고, 김씨가 왕위계승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왕권강화를 표시하기 위해 대군장이라는 의미의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6세기 지증왕은 한화정책(漢化政策)을 추진하여 중국의 제도를 채택,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新羅)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王)으로 바꾸었다.

왕호	시기	의미
거서간	1) 박혁거세	군장
차차웅	2) 남해	무당, 제사장
이사금	3) 유리 ~ 16) 흘해	연장자
마립간	17) 내물 ~ 21) 소지	대군장, 대수장
왕	지증왕 ~	

답: ④

6.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㉑ 발해는 영역을 확대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였지만 그 영역에는 말갈족이 다수 거주하였다.

㉒ 발해는 이중 기단에 3층으로 쌓는 석탑 양식이 유행하였으며, 흙으로 구워 만든 이불병좌상이 많이 보인다.

㉓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으며,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인 촌락에 수령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㉔ 대조영이 698년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서 국호를 ‘진(震)’이라 하고 건국하였으며, 2대 무왕에 이르러 ‘발해’로 개칭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틀린 것 ㉠㉡㉢

㉠이불병좌상은 발해의 문화재이나, 이충기단에 3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양식이다.

㉡ 지방행정의 말단단위인 촌락에는 수령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세력가가 지배하게 하였다.

㉢ 국호를 진에서 발해로 고친 것은 고왕(대조영)때의 일이다.

답: ④

7. 다음 중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국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② 통일신라 민정문서는 남녀 인구 수와 소·말의 수, 토지 면적 등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③ 신라에서는 4-5세기를 지나면서 철제 농기구가 점차 보급되었다.
 - ④ 삼국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여 수도 뿐 아니라 농촌 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하였다.

해설

④ 농촌각지에서도 시장이 번성한 것은 조선후기의 상황이다. 삼국시대에는 수도 같은 도시에 서만 시장이 형성되었다.

답: ④

8. 다음은 고려 성종이 유교적 정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우대하여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였다.

㉣ 3성 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관제를 마련하였다.

㉤ 최승로가 올린 시무 10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틀린 것 ㉢㉣

㉢ 성종때는 당의 3성6부를 참조하여 2성6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관제를 마련하였다.

㉣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렸다.

답: ②

9. 고려 시대의 무신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 ② 최충현은 최고 집정부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하였고, 도방을 확대하여 군사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 ③ 최우는 문무 백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서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정방을 설치하였다.
 - ④ 삼별초는 좌별초와 우별초 및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조직된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해설

③최우는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과 능력있는 문신을 등용하기 위한 서방을 설치하였다. (정방과 서방이 바뀌었다.)

답: ③

10. 다음의 역사서가 저술된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와 신이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일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오.

- ① 부석사 무량수전 ② 광개토왕릉비
- ③ 석촌동 고분군 ④ 법주사 팔상전

해설

동명왕편은 고려 무신정권기에 이규보에 의하여 쓰여졌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후기 대표적인 주심포양식의 건축물이다. (무량수전은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짓고 고려 현종(재위 1009~1031) 때 고쳐 지었으나 공민왕 7년(1358)에 불에 타 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다시 지은 것이다.)

② 고구려 5세기 ③ 백제 한성시대(계단식 돌무지무덤인 석촌동 고분은 백제 건국의 주도세력이 고구려 계통임을 알려준다.) ④ 조선 후기(17세기)

☛ 다른 보기엔 고려시대가 나왔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②③은 삼국시대 ④번은 조선시대라 고려라는 것만 알았다면 답쓰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답: ①

11. 다음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걸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명종 때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임시 회의기구이다.
- ② 세도정치기에도 핵심적인 정치기구로 자리 잡았다.
- ③ 의정부의 의정과, 공조판서를 제외한 판서 등 주요 관직자가 참여하는 합좌기관이다.
- ④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해설

지문에서 말하는 기구는 [비변사]이다.

① 비변사는 종종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되었고, 을묘왜변 때 상설기구화되었다.

[참고] 비변사의 변천 : ‘변방의 경비를 담당하는 것’에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원래 비변사는 종종 초 삼포왜란을 계기로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조예하의 임시회의기구로 설치하였다. 이후 을묘왜변 때 독자적 관청을 설치하여 상설기구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참석자가 전·현직 정승을 비롯하여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 대장, 대제학, 강화유수 등 국가의 중요관원들로 확대되었고 세도정치때 권력의 핵심기구가 되어 6조와 의정부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국정결권권을 의정부에 이관하고, 3군부제도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비변사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폐지되었다.

답: ①

12. 다음은 조선 시대 봉당에 대한 설명이다. ㉠-㉣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그 후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 ① ㉠ -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에서 주로 소극적인 부류가 서인, 적극적인 부류가 동인으로 형성되었다.
- ② ㉡ -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나뉘어져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북인이 집권하였다.

- ③ ㉔ - 예송논쟁에서 나타난 예론의 차이는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 사이의 정치적 입장과 연결되었다.
- ④ ㉔ - 노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설 ④ 경신한국이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데,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북방개척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이며, 노론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민생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론	소론
송시열 중심(이이의 학풍 계승)	윤증 중심(성혼의 학풍 계승)
- 대의명분 중시 - 내수외양(內修外攘) 중시 - 민생안정과 자치자강(自治自強) 강조	- 실리 중시 - 적극적인 북방개척 강조

답: ④

13. 다음은 조선 시대 양반 이후 수취 체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정법에서는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 ②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되어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 ③ 영정법에 따라 전세의 비율이 이전 보다 다소 낮아져 대다수 농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 ④ 대동법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혁론으로 제기되었다.

해설 ③ 영정법의 시행으로 전세액 자체는 감소했지만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분의 보충비 등의 부가세가 전세와 같이 부과되었는데, 그 액수가 본래 전세액의 몇 배에 이르러, 농민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한 자영농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조선 전기에 시행되었다면 농민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인 전호로 전락해버린 조선 후기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	내용	농민부담
영정법 (인조)	전세의 정액화(1결당 미곡 4두) 종래의 연분9등법 대신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① 소작농에게 전가 ② 전세 외 비용(수수료, 운송비 등) 과다 → 농민 부담 증가
대동법 (광해군~숙종)	공납의 전세화(1결당 미곡 12두)	① 농민부담 일시적 감소 ② 공인 등장(관청물품 납부) → 상업 발전
균역법	1년 균포 2~3필 부과 → 1필로 (감포)	지주가 결작을 소작농에게 전가 → 농민부담 가중

답: ③

14. 조선 후기의 가족 제도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재하였다.
 - ② 동성마을이 많아지고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다.
 - ③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 대신에 딸과 외손자가 제사를 지냈다.
 - ④ 혼인은 친영제에서 남귀여가혼으로 변화되었고, 재산은 균등하게 상속되었다.

해설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의식, 예절발달하여 부계중심으로 가족제도가 변화하였다. 이에 부계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사는 동성마을을 이루어갔다. 이때에는 개인이 개인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종중이라 하는 친족집단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

①③④는 고려, 조선전기의 가족과 사회상이다.

	조선 전기까지	조선 후기(17세기 이후)
특징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 미침	부계중심의 가족제도 강화
혼인	남귀여가혼(= 서류 부가) 남자의 처가살이가 많았다.	시집살이 확산(친영제도 일반화)
상속	자녀균분상속	큰 아들 우대
제사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냄, 책임분담	큰 아들이 봉양, 아들 없는 경우 양자 일반화

답: ②

15.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찍이 세조께서, “우리 동방에는 비록 여러 역사서가 있으나 장편으로 되어 귀감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리들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하셨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주상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서거정 등에게 편찬을 명하셨습니다. (중략) 이 책을 지움에 명분과 인륜을 중시하고 절의를 숭상하여, 난신을 성토하고 간사한 자를 비난하는 것을 더욱 엄격히 하였습니다.

- 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②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③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④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였다.

해설 [서거정]이 결정적 힌트다. 서거정이 활약을 펼친 시대는 조선 성종 때로 지문의 역사서는 [동국통감]을 말한다. 동국통감은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총정리한 최초의 통사(通史)로, '3조선(단군·기자·위만) ⇒ 삼한 ⇒ 삼국 ⇒ 통일신라 ⇒ 고려'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국사의 주류로 기술하였다.

[오답체크] ② 세가,지,열전으로 구성된 것은 기전체양식을 말하는데 [동국통감]은 시대순으로 쓰여진 편년체 역사서이다. ③ 우리 고대사를 만주지방까지 확대시킨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조선후기 이종휘의 [동사](고구려사 중심)와 유득공의 [발해고](발해사 연구)가 있다. ④ 기전체로 쓰여진 한치윤의 해동역사이다.

* 서거정 [徐居正, 1420~1488] :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 45년간 여섯 왕을 섬겼다(주로 성종 때 많은 활동을 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했으며, 문집에 《동문선(東文選)》, 《필원잡기》 등이 있다.

답: ①

16. 다음은 조선 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의 행적과 국정 전반을 기록한 것으로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까지 소상히 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② 조선 초기부터 제작되었으나,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현재 남아 전해지는 것이 없다.
- ③ 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40여 일만에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 ④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해설 [오답] ①은 조선왕조실록을 말한다.

의궤는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 주요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임금의 열람을 위하여 어람용 1부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나머지는 관련 관서 및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② 현존 최초의 의궤는 1600년 선조 33년에 만들어진, 의인왕후 의궤로, 임진왜란 이전의 의궤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가 물러가면서 외규장각에 있던 다수의 의궤를 약탈하였다. ④ 프

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외규장각 의궤는 2011년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반환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답: ①

17. 다음 대한제국기의 개혁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권 수호와 절대화에 필요한 대한국 국제 제정
- ②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정치 추진
- ③ 다양한 시책을 통한 황실 재정 확충
- ④ 양전과 지계 발급 사업 실시

해설 ② 대한제국은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된 전제황권을 표방한다.

답: ②

18.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 노비 문서는 모두 소각한다.
-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깎을 없앤다.
-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 토지는 평균 분작한다.

- ① 고부 농민봉기는 조병갑의 학정에 항거한 사건이며, 정부는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여 동학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였다.
- ② 청이 조선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하자, 일본은 임오군란 때 맺은 텐진(천진)조약을 구실로 파병하였다.
- ③ 농민군은 전주화약의 체결로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 ④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후 해산하였다.

해설 ② 텐진조약은 임오군란 때가 아니라, 갑신정변 때 체결된 것이다.

④번의 경우 우금치 전투는 알라도 보은 전투에서 대패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집중해서 문제를 읽어보면 ②번이 임오군란이 아니라, 갑신정변임을 알수 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않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았을 것이다.

답: ②

19. 다음 중 일제의 경제침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10년대 시작된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의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 및 용도를 조사한 것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와 농민의 경작권을 함께 인정하였다.
- ②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수리시설의 확대와 품종교체, 화학비료 사용증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일본을 발전된 공업지역으로, 만주를 농업과 원료 생산 지대로 만들고, 한반도를 경공업 중심의 중간 지대로 만들기 위해 조선공업화 정책을 펼쳤다.
- ④ 1940년대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세금을 늘리고 저축을 강요하여 마련된 자금은 군수기업에 집중 지원되었다.

해설 ① 토지조사사업은 오로지 지주의 소유권만을 인정하였고, 농민이 관습상 가지고 있던 경작권과 입회권 등 각종 권리는 부정되어 대다수 농민의 급속한 몰락을 가져왔다.

답: ①

20. 다음 (가), (나)는 해방 후 두 정치인의 발언이다. 아래의 <보기> 중 두 정치인이 발언한 시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전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 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로 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보기>

- ㉠ 포츠담선언
㉡ 제주 4·3 사건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남북지도자회의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나)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10.) 김구가 선거 가능한 지역만(남한)만의 총선거실시를 결정한 UN소총회 이후 남북협상 하기 전에 발표한 글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 결정 ㉤2차 미소공동위 결렬, 2개이다.
[오답] ㉠포츠담선언은 해방이전(1945.7) ㉡제주 4.3사태(1948.4) ㉢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1945.12) ㉥남북 지도자회의

대한민국 건국과정

시기		사건	내용
1943	11	카이로회담	한국 독립 최초 약속(미·영·중)
1945	2	알타회담	38선 논의,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
	7	포츠담선언	한국 독립 재확인
	8.15	해방	
	9	미군정 시작	임시정부·건국준비위원회 불인정
	12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1946	3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협의대상 선정 문제로 결렬
	6	정읍발언	남한 단독정부 수립 주장(이승만)
	10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김규식·여운형
1947	5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미국의 한반도 문제 UN 상정
	11	UN총회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결의
1948	1	UN임시위원단 입국	소련의 북한 입국 거부
	2	UN소총회	선거 가능 지역만(남한) 실시 결의
	4.3	제주 4·3사건	단독정부 수립 반대
	4	남북협상	김구·김규식의 북한 방문
	5.10	총선거	유엔 감시하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7.17	헌법 제정	
	8.15	대한민국정부 수립	제1공화국 출범

답: ②